

파운드 스텔링과 금 태환의 역사

History of Pound Sterling & Gold Convertibility

775년 앵글로색슨 은화부터 1971년 닉슨 쇼크까지

From Anglo-Saxon Silver Penny (775) to Nixon Shock (1971)

약 1,200년에 걸친 화폐 체제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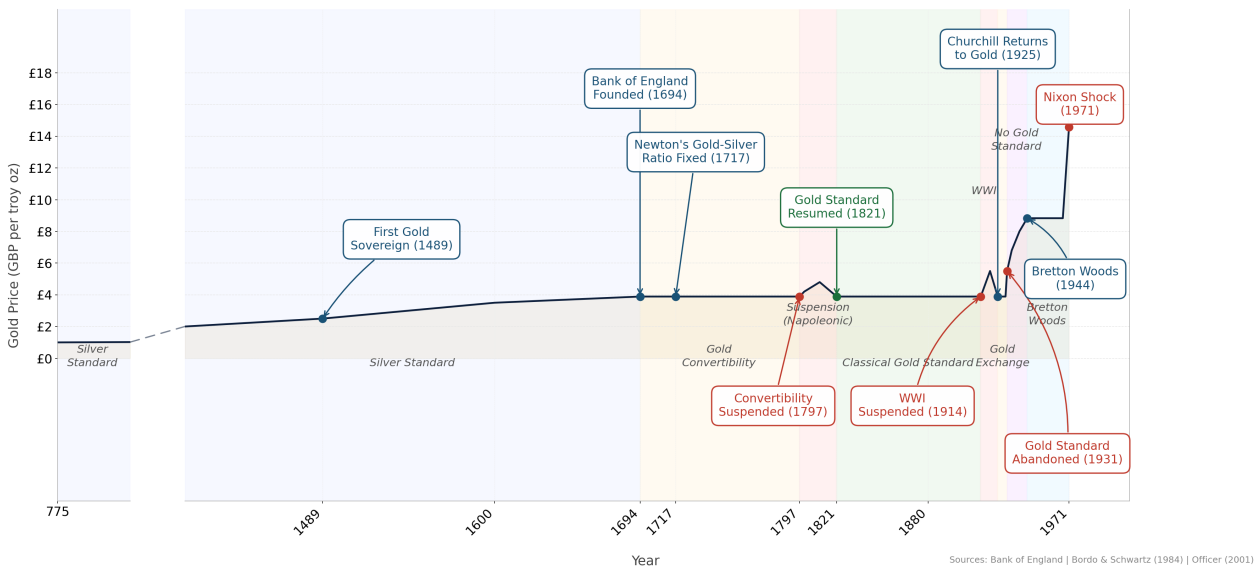


Figure 1: 파운드 스텔링의 금 태환 가격 변동과 주요 역사적 사건 (775-1971)
Gold Price in Pound Sterling and Key Historical Events (775-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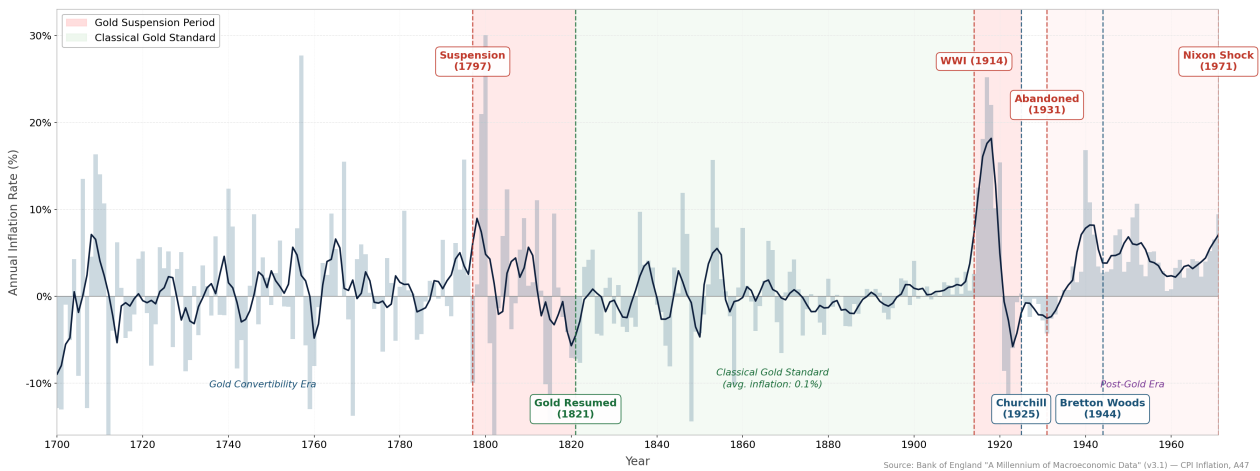


Figure 2: 영국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금 태환 중단 시기 (1700-1971)
UK Annual Inflation Rate and Gold Standard Suspension Periods (1700-1971)

1. 개요 / Overview

파운드 스털링 (*Pound Sterling*)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연속 사용된 통화다. 775년 앵글로색슨 왕국의 은화에서 출발하여 약 1,200년에 걸쳐 은본위, 금은 복본위, 파운드-금 태환, 고전적 금본위제, 브레턴우즈 (*Bretton Woods*) 체제를 거쳐 1971년 닉슨 쇼크로 금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다.

본 보고서는 두 그래프를 통해 이 과정을 분석한다. Figure 1은 금 가격의 실제 수치 변동과 각 사건의 정량적 영향을 보여주며, Figure 2은 영국 중앙은행 (*Bank of England*)의 실제 CPI 데이터 (A47 시트)를 기반으로 금 태환 중단 시기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시각화한다.

2. 은본위 시대: 파운드의 탄생 / *Silver Standard Era (775-1489)*

2.1 앵글로색슨 은화와 파운드의 기원 (775)

파운드라는 단어는 라틴어 *libra pondo*(무게의 파운드)에서 유래했다. 775년경 머시아 (*Mercia*) 왕국의 오프 (*Offa*) 왕이 은화 “스털링 페니 (*sterling penny*)”를 도입했는데, 은 1파운드 무게로 동전 240개를 주조한 것이 그 시작이다. 240펜스 = 1파운드라는 등식은 여기서 나왔다.

2.2 잉글랜드 최초의 국가 통화 (928)

928년, 잉글랜드 최초의 왕 애설스탄 (*Aethelstan*)이 파운드 스털링을 국가 공식 통화로 채택하고 전국에 조폐국을 세웠다. 당시 1파운드로 소 15마리를 살 수 있었다.

2.3 최초의 파운드 금화 (1489)

헨리 7세 (*Henry VII*) 치세인 1489년, 역사상 최초의 파운드 금화인 “소버린 (*sovereign*)”이 주조됐다. 이로써 영국은 금화와 은화를 함께 사용하는 금은 복본위제 (*bimetallic standard*)로 진입했다. Figure 1에서 이 시점부터 금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파운드-금 태환의 시작 / *Beginning of Convertibility (1694)*

3.1 영국 중앙은행 설립과 금 태환 시작 (1694)

1694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진 윌리엄 3세 (*William III*)는 영국 중앙은행 (*Bank of England*)을 설립했다. 중앙은행은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 지폐에는 다음 문구가 적혀

있었다:

“*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 the sum of...*”

(소지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금화로 교환해 드립니다)

이것이 파운드-금 태환의 공식적 시작이다. 오늘날까지도 영국 지폐에 이 문구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역사적 흔적이다. Figure 2에서 이 시기(1700-1797)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5%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컸다 (최대 +27.7%, 최소 -25.2%).

3.2 뉴턴의 금-은 비율 고정과 사실상의 금본위 전환 (1717)

1717년 9월 21일, 조폐국장 아이작 뉴턴 (*Isaac Newton*)은 금 기니화 (*guinea*)의 가치를 21실링으로 고정했다. 이는 유럽 시장의 실제 금-은 비율보다 금을 약간 높게 평가한 것으로, 그레섬의 법칙 (*Gresham's Law*)이 작동하여 은화가 유럽으로 유출되고 금화만 영국에 남게 됐다. 뉴턴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영국을 사실상의 금본위제로 이행시킨 것이다.

4. 나폴레옹 전쟁과 금 태환 중단 / *Napoleonic Wars & Suspension (1797-1821)*

1797년,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은 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파운드가 처음으로 금과 분리된 불환지폐 (*fiat currency*) 시대가 시작됐다.

실제 데이터 (Bank of England, A47)를 보면, 이 시기(1797-1821)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0.8%로 수치 자체는 높지 않으나, Figure 2에서 보듯 극심한 변동성이 특징적이다. 1800년대 초반 최고 +30.0%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22.8%까지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를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평균 수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당시 통화 불안정의 실태를 보여준다.

1815년 워털루 전투 승전 후, 1819년 “현금 지급 재개법 (*Act for the Resumption of Cash Payments*)”이 통과됐고, 1821년 5월 금 태환을 공식 재개했다.

5. 고전적 금본위제의 황금기 / *Classical Gold Standard (1821-1914)*

1821년부터 1914년까지 약 90년간은 고전적 금본위제의 황금기였다. Figure 1에서 이 구간(녹색 영역)의 금 가격이 £3.89/온스에서 거의 평탄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의 실제 CPI 데이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0%로 사실상 제로였으며, 9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물가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기 변동은 여전히 존재했으나 (-14.4%~+15.7%), 5년 이동평균선은 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Bordo & Schwartz (1984)가 강조한 금본위제의 핵심 성과다.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파운드가 사실상의 국제 기축통화로 기능했고, 캐나다

(1853), 독일 (1871), 미국 (1873) 등이 잇따라 금본위제를 채택했다.

6. 1차 세계대전과 금본위제의 붕괴 / *WWI & Collapse (1914–1931)*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금 태환이 다시 중단됐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구간 (1914–1925)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6.4%로 급등했으며 최고 +25.2%를 기록했다. Figure 2에서 이 구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명확히 보인다.

1925년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이 전전 환율 £1 = \$4.86으로 금본위제에 복귀했다. 실제로 이 시기(1925–1931)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6%의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파운드 고평가로 인한 경기 위축의 결과였다. 처칠은 이를 나중에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회고했다.

1931년 9월 21일, 대공황의 여파로 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가 급속히 고갈되면서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파운드 가치는 즉시 25% 하락했다. 이것이 파운드-금 태환의 영구적 종말이었다.

7. 달러-금 체제: 브레튼우즈 / *Bretton Woods System (1944–1971)*

1944년 7월, 44개국 대표가 브레튼우즈에 모여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수립했다. 금 1온스 = \$35 고정, 다른 통화는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 유지. 이 체제에서 금 태환의 중심은 파운드에서 달러로 완전히 이동했고, 약 1,000년간 유지됐던 영국의 금융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Figure 1에서 이 시기 금 가격이 £8.83/온스로 고정된 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ure 2에서 보듯 이 시기(1944–1971)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4.4%로, 고전적 금본위제 황금기(0.0%)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았다. 달러-금 고정이라는 간접적 제약만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8. 닉슨 쇼크: 금 태환의 완전한 종말 / *Nixon Shock (1971)*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은 달러-금 교환의 즉각적 종단을 선언했다. 베트남전 전비와 복지 지출로 인한 달러 과잉 공급으로 미국의 금 보유고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었다. Figure 1에서 1971년 직후 금 가격이 £14.58까지 수직 상승하는 것은 277년간 억눌려 있던 금 가격이 한꺼번에 자유화된 결과다.

닉슨 쇼크로 1694년 영국 중앙은행 설립 이래 277년간 이어져 온 파운드/달러-금 태환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됐다. 이후 전 세계 통화는 정부의 신용만을 담보로 하는 불환지폐 (*fiat money*)가 됐다.

9. 통화 체제 변천 및 인플레이션 요약 / Summary

Table 1: 파운드 스털링 통화 체제 변천과 실제 인플레이션 (Bank of England CPI, A47)
Monetary System Changes and Actual Inflation Data (Bank of England CPI, Sheet A47)

기간	체제	평균 인플레이션	핵심 내용
775-1489	은본위제	—	은 1파운드 = 240펜스
1489-1694	금은 복본위제	—	최초 금화 (sovereign) 등장
1694-1797	파운드-금 태환	+0.5%	중앙은행 설립. 지폐 태환 시작
1797-1821	태환 중단	+0.8%	나폴레옹 전쟁. 극심한 변동성
1821-1914	고전적 금본위제	0.0%	황금기. 90년간 물가 안정
1914-1925	태환 중단	+6.4%	1차 세계대전. 인플레이션 급등
1925-1931	금환본위제	-1.6%	처칠 복귀. 디플레이션 초래
1931-1944	금본위 이탈	+2.9%	대공황. 파운드-금 태환 영구 종료
1944-1971	브레턴우즈	+4.4%	달러-금 고정. 인플레이션 지속
1971-현재	불환지폐	—	닉슨 쇼크. 금 태환 완전 종료

10. 결론 / Conclusion

Bank of England의 실제 CPI 데이터 (A47)는 직관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소 다른 그림을 보여 준다. 나폴레옹 전쟁 기간(1797-1821)의 태환 중단이 연평균 인플레이션(0.8%)으로는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극심한 변동성(최대 +30.0%, 최소 -22.8%)이 당시 통화 불안정의 본질이었다.

가장 명확한 대조는 고전적 금본위제 황금기(1821-1914)와 그 이후의 차이이다. 90년간 연평균 0.0%의 물가 안정을 유지한 이 시기는 금 태환이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실질적 제약으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 1차 세계대전 태환 중단 시기(1914-1925)는 연평균 +6.4%로 급등했고, 브레턴우즈 시기(1944-1971)조차 +4.4%를 기록했다.

금 태환은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 장치”였으며, 1971년 닉슨 쇼크로 그 제약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것이 현대 통화 시스템의 본질이다.

11. 참고 문헌 / References

[1] Bank of England — “A Millennium of Macroeconomic Data” (v3.1)

영국 중앙은행 공식 거시경제 역사 데이터셋. 일부 시리즈는 13세기까지 소급된다. **Figure 2**의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 데이터셋의 A47 시트(Wages and Prices)에서 직접 추출한 실제 값이다. Figure 1의 금 가격 역사도 이 데이터셋을 근거로 한다.

- 데이터셋 페이지: bankofengland.co.uk/statistics/research-datasets
- 직접 다운로드 (xlsx): bankofengland.co.uk/.../a-millennium-of-macroeconomic-data-for-the-uk.xlsx

[2] Bordo, M.D. & Schwartz, A.J. (eds.) — *A Retrospective on the Classical Gold Standard, 1821–193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BER, 1984. ISBN: 0-226-06590-1.

1982년 NBER 컨퍼런스 발표 논문 모음집. 고전적 금본위제 1821–1931년 110년을 다루며, 영국·독일·이탈리아·스웨덴·캐나다 사례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의 금본위제 운영 메커니즘 및 물가 안정 서술의 주요 학술 근거.

- NBER 책 페이지: nber.org/books-and-chapters/retrospective-classical-gold-standard-1821-1931
- Introduction PDF: nber.org/.../c11125.pdf
- Chapter 1 — “The Gold Standard: The Traditional Approach” PDF: nber.org/.../c11126.pdf

[3] Officer, L.H. — *Between the Dollar-Sterling Gold Poi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ISBN: 0-521-36538-4.

달러-파운드 금본위제 환율의 역사를 1790년대부터 1931년까지 분석. 금 포인트, 환율 재정거래, 시장 통합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Figure 1의 금 태환 가격 역사의 학술적 근거.

- EH.net 서평: eh.net/book_reviews/between-the-dollar-sterling-gold-points/
- MeasuringWorth 환율 데이터셋: measuringworth.com/datasets/exchangeglobal/

[4] LBMA — London Gold Price Historical Data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 /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1919년 9월 12일 첫 고시 (£4.18.9d/온스) 이후 현재까지의 런던 금 가격 공식 벤치마크. Figure 1의 금 가격 데이터 출처. 장기 역사 시계열(파운드 기준)은 [1] Bank of England 데이터셋과 병행 참조.

- LBMA 공식 가격 페이지: [lbma.org.uk/prices-and-data/precious-metal-prices](https://www.lbma.org.uk/prices-and-data/precious-metal-prices)
- LBMA 금 가격: [lbma.org.uk/prices-and-data/lbma-gold-price](https://www.lbma.org.uk/prices-and-data/lbma-gold-price)

주: Figure 1의 775-1694년 금 가격 데이터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정값을 포함한다. Figure 2의 CPI 인플레이션은 Bank of England "A Millennium of Macroeconomic Data" v3.1, Sheet A47의 실제값이다.